

무안공항 최소 10월까지 운항 재개 불가능할 듯

로컬라이저 개선 1년·방위각 조정 등 폐쇄 장기화 될수도 김영록 지사 “사고수습·조류 퇴치 문제 등 근본 개선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폐쇄된 무안공항의 운항이 최소 10월까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같은 일정도 유가족들의 사고 수습 및 진상 조사 속도, 조류퇴치 개선 방향 등과 맞물려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안국제공항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나 새 대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므로 10월까지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서 검토중인 ‘무안공항 단계별 운항 대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국토부는 애초 오는 4월 18일 새벽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 무안공항을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등은 이 과정에서 오는 5월까지 사고 수습과 활주로 정리 등을 진행하고 이후 8월까지 활주로 항행안전등 보수를 거쳐 활주로 연장 공사가 준공되면 계기착륙시설(ILS·Instrument Landing System) 설치를 9월까지 완료하면 사고 장소 반대쪽 활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항 운항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시나리오에는 사고가 발생한 19번 활주로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활주로(2800m)를 3160m로 늘리는 연장공사가 8월 마무리되는 만큼 여기에 더해 계기착륙시설이 9월까지 마무리되면 10월부터는 항공기 운항을 검토할 수 있는 공항 조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검토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다만, 사고 방향 활주로의 경우 기존에 설치됐던 로컬라이저를 해외에서 새로 확보하는 데만 1년 가량 걸리고 세밀한 방위각 조정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운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 등의 시나리오대로 10월부터 운항이 검토되면 올해 동절기(10~내년 1월) 여행 수요 확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모객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역 여행업계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전남도 등은 유가족들의 사고 수습 과정 및 진상 조사, 조류퇴치 개선 방향 등 안전 시설 확보에 대한 논의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설부터 운항 재개 일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고 로컬라이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속도가 남아 있어 서두르지 않고 안전 시설을 최대한 확충,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항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뒤 오는 4월까지 폐쇄된 무안공항 활주로 정경. 사고 방향 활주로 정상화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쪽 활주로의 경우 연장공사 준공(8월) 및 계기착륙시설 설치 완료(9월) 등을 고려하면 10월까지 일부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강제동원’ 지운 일본 군함도... 또 ‘뒤통수’

등재당시 약속 10년 가까이 안지켜 정부 “강력 대응 조치” 도 헛구호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 일본이 한국의 요청을 여전히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부족’이 다시 확인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일본 각지에 산재한 23개 근대산업시설이며, 이중 군함도를 포함한 7곳은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다.

이는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당사국들과 대화 및 추가 조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에는 일본 측이 한국과 협의를 거쳐 조치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청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시물이 아닌 한국어판 증언 자료집을 서가에 비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강제노역’의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달

라 요청했지만, 일본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관련 설명 도입,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등 조치로 대신했다. 심지어 2023년 9월 도쿄 센터에 설치한 한 일 강제병합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전시물을 즉각 철거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있었다’고 발언했던 일본 측이 이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12월 제출한 보고서에는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빼고 ‘지원’(support)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희석했고, 2019년 보고서 때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을 담지 않았다.

지난해 다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관련 노동자 전시물에 ‘강제’ 표현이 빠지고 일본이 약속했던 추도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군함도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가 확인된 것이다.

일본 측과 치열한 협상을 거쳐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두 차례 동의했던 우리로서는 결과적으로 거듭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되면서 외교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일단 우리 측은 앞으로도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혜나 기자 khn@연합뉴스

함평 종오리 농장서 H5형 AI 항원 검출... 방역 긴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진행

함평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종오리 1만 2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가 진행중이다.

농장주는 사육중인 종오리 폐사가 늘고 산란을 저하 등의 실태를 신고했고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거쳐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인된 뒤 현재 농립부의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1~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조치에

이어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 분석 활동을 벌이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살처분과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관리에 들어갔다. 또 계열 농가와 전남지역 오리농장,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일 밤 11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광천상무선’ 속도

▶1면에서 계속

또 이번 사업은 경제성 분석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 0.88, 종합평가(AHP) 0.616으로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노선은 B/C가 0.7 이상이거나 AHP 값이 0.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열린 ‘광천상무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정순재 용역사 부사장은 “광천상무선 구축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광주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의 핵심 사업”이라며 “상무역, 터미널, 전·일방부지, 광주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1·2호선과 연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들도 한결같이 광천상무선의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시교통,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는 “광역순환노선인 2호선이 사실상 한 바퀴를 도는 데 약 80여분이 걸린다”며 “즉, 중간에 환승할 수 있게 된다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2호선 중간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통유발시설을 지나가는) 광천상무선이 구축되면 승객 수요도 많아지는 것은 물론 도시가 활성화되고 경제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대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은 물론 2호선도 현재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더현대광주나 광주신세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중요한 지점을 지

나지 않는다”면서 “이 지점들의 교통 수요가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면 도시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광주시민들도 광천상무선 구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빠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한 시민은 “복합소방물과 주택재개발 등이 이뤄지는 광천권역은 현재보다 향후 더 큰 교통문제가 예상된다”며 “교통체증 해소의 유일한 해답인 광천상무선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광천상무선은 더현대광주, 광주신세계, 광천재개발 등 도시가 집중되고 교통량이 급증하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라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광천상무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12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 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2월 3일

플랜엔지니어링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106동 205호 (매월동, 매월종합상가)
청산인 김현철

73년을 밝힌 호남인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국안내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북 구	• 북광 525-3761	• 신 안 222-8171
	• 알 신 571-7858	• 오 치 266-7801
	• 용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0054
	• 동 부 225-6001	• 중 영 222-0054
	• 중 청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용 영 603-0311
	• 화 청 369-1625	
광산구	• 은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